

격려사

제14회 대불련 동문대회가 천년이 넘는 화엄성지인 화엄사와 부처님의 지혜가 스며 있는 지리산 일대에서 개최하게 되어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8월의 무더위에도 신심과 열정으로 정진하시는 백효흠 회장님, 그리고 임원진과 소임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불련 총동문회 여러분!

함허 선사께서는 ‘일천겁의 세월이 흘러도 옛날이 아니고, 만세를 뻗쳐 있어도 항상 지금이다 (歷千劫而不古 亘萬歲而長今)’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과거의 천겁과 미래의 만세를 살펴보라는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동문대회의 대주제인 ‘열어온 50년, 열어갈 50년’ 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국사회가 그랬듯 불교도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 변화속에서 대불련의 구도 열정과 활발한 전법활동은 우리 사회의 동력이자 한국불교의 희망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여러분의 수행과 정진, 포교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불교가 더욱 반짝이고 더 넓은 길에 들어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진의 연속, 그리고 성취를 나누어가는 시간에 들었음에도 현시대의 문화와 정신 또한 지난 반세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급격히 변화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둘러싼 환경과 세태, 문화는 기성세대의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과 세대간의 지혜로운 소통을 통해 포교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동문들이 풀어나가는 과제이기면서도 종단적으로도 매우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젊은 불자들의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와 자비실천의 모범을 이루어 가는 모습은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금번, 대불련 동문대회가 성찰과 소통을 통해 미래세대의 방향을 고민하고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내고, 해법을 찾아가는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격려의 마음과 오랜 고마움을 전해드리며, 화엄사와 지리산의 조화로운 기운속에서 금번 대회가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유익하게 이끌고 향기롭게 회향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